

SKC, PET필름 미국공장 “제2도약”

매출 1억6000만달러 돌파 ... 의료용·태양전지용 필름 개발 강화

SKC의 미국 조지아 소재 PET(Polyethylene Terephthalate) 필름 공장이 제2의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

SKC는 1999년 말 완공한 이후 PET 필름을 집중 생산해왔으며 미국의 핵심 거점으로 인식하고 있다.

현지 매출액은 2000년 7000만달러에 불과했으나 2006년에는 1억6000만달러를 돌파한데 이어 2008년에는 2억 3000만달러로 급증했으며 2006년 이후 연평균 10%대 이익률을 거두며 성장을 거듭하고 있다.

생산능력은 4만5000~5만여톤으로 미국 PET 필름 시장의 15~20%를 점유하고 있으며 X-레이, LCD TV, 콘덴서, 자기기록, 포장, 그래픽, 이미지, 산업용 등 다양한 분야에 공급하고 있다.

특히, PET 필름 자체 브랜드인 <스카이롤(Skyrol)>은 세계적인 브랜드로 평가를 받을 정도로 품질 수준이 향상됐다.

SKC는 고부가 제품으로 코닥에는 최첨단 의료용 필름을 공급하고 있는데 세계에서 한 두 기업만이 가능한 최고급 기술이 필요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저가 필름은 중국·인디아 기업들의 공략이 거세지면서 입지가 줄어들자 고가의 특수제품을 대량으로 싸게 공급한다는 <특수제품 대량생산>이라는 전략을 추진한 것이 효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최근에는 미국의 경기침체로 필름 수요가 20% 정도 감소하는 등 경영환경이 악화됨에 따라 2008년 말부터 일부 조직을 통폐합하는 동시에 고부가가치 중심의 제품구조로 혁신하는 작업을 계속하고 있다.

특히, 그린에너지 관련 분야에 사용되는 필름의 생산·개발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에 따라 땅속에서 켜는 재생필름과 태양전지용 필름 그리고 의학용 필름의 개발에 적극 나서고 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09/03/27>